보도시점 (전매체) 배포즉시

배달플랫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, 제9차 회의 개최

- 수수료 문제 제외한 나머지 사항 방향성에 공감대 형성
- 차기 회의에서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놓고 추가 논의

「배달플랫폼-입점업체 상생협의체」(이하 '상생협의체' / 위원장: 이정희 교수) 제9차 회의가 10월 30일(수) 오후 14시 30분 개최되었다.

< 회의 개요 >

◈ **일시** : 2024년 10월 30일(수) 14:30

◈ **장소** : 신한은행 본점 6층 대회의실

◈ **참석자**

- (**배달플랫폼**) 배달의민족, 쿠팡이츠, 요기요, 땡겨요
- (**입점업체**) 소상공인연합회, 한국외식산업협회, 전국가맹점주협의회, 전국상인연합회
- (**공익위원**) 이정희 교수(상생협의체 위원장, 중앙대 경제학과), 이정수 사무총장(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), 이동주 부원장(중소벤처기업연구원), 정유경 교수(세종대 호텔관광대학)
- (**특별위원**) 공정거래위원회, 기획재정부, 농림축산식품부, 중소벤처기업부

◈ **논의사항**(입점업체 측 4개 요구사항)

❶ 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

❷ 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(수수료 및 배달료) 표기

❸ 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조건 변경

❹ 배달기사 위치정보 공유

지난 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오늘 회의에서 배달플랫폼 측은 배달플랫폼 입점업체(이하 '입점업체') 측 4개 요구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한 상생 방안을 제안하였다. 이러한 배달플랫폼 측의 제안에 대해 입점업체 측의 입

장을 듣고, 양측의 논의가 교착되는 경우에는 공익위원들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.

오늘 논의한 결과, ❶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을 제외한 ❷~❹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.

먼저, ❷소비자 영수증에 입점업체 부담항목(수수료 및 배달료) 표기에 대해서는 입점업체 부담항목을 안내문구*로 표기하기로 하였다.

* 예시) 가게에서는 주문금액에 대한 중개수수료(**%), 결제수수료(**%), 배달비(**원)를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하고 있습니다.

다음으로, ❸배달플랫폼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변경*에 대해서는 ▲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모두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중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▲당장 중단할 의사가 없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배달앱 멤버십 이용혜택 제공 조건 운영 방침을 수정하기로 하였다. 한편, 쿠팡이츠는 현재 시행 중인 멤버십 혜택 제공 조건을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,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제시해 달라는 공익위원들의 요청이 있었다.

* 음식점이 다른 배달앱에서 설정한 거래 조건과 비교하는 행위 등

입점업체에 대한 ❹배달기사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는 △소비자의 주소 노출 우려와 △배달기사 단체(라이더유니온, 배달플랫폼노동조합)의 반대 의견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있었다. 이에 ▲배달기사가 주문을 수락한 후 픽업할 때까지 구간에 한정하여 ▲배달플랫폼들이 약관변경, 배달기사의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배달기사 위치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.

한편, ❶수수료 등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관해서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공익위원들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다시 한번 상생안을 마련 후 차기 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하였다.

차기 회의는 11월 4일 월요일에 개최하기로 하였다.

담 당	배달플랫폼-입점업체 상생협의체	책임자	위원장	이정희
담당 부서	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디지털경제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설민 (044-200-4365)
		담당자	사무관	박 찬 (parkchan37@korea.kr)
담당 부서	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	책임자	과 장	김승태 (044-215-4510)
		담당자	사무관	박가영 (gayoung0816@korea.kr)
담당 부서	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 상생협력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형철 (044-204-7920)
		담당자	사무관	정지수 (water1357@korea.kr)
담당 부서	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실 식품외식산업과	책임자	과 장	김재경 (044-201-2151)
		담당자	사무관	박춘규 (ckpark@korea.kr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